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여기에서 말한 '일귀하처(一歸何處)'는 화두(話頭)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각 주인공(一覺主人公)'을 보라는 것이 반조(返照)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봉은 이미 '일귀하처'에서 굳건히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는데, 설암스님은 무엇 때문에 험박하여 다시 '일각주인공'을 보도록 하였을까?

이는 특별히 화두를 보는 가운데 철저히 못한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준 것이니, 과연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열등하며, 무엇이 원만하고, 무엇이 편벽하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깨달음이 철저히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진실과 허위, 구경(究竟)을 얻었느냐와 못 얻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방편의 우열(優劣)과 심전(深淺)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삼가 불초(佛粗)의 정법(正法)상에서 부절없이 이견(二見)을 내어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宗敎) 선사가 영시량(映時亮)에게 보내는 답서에 이르기를.

"다만 일상생활의 인연이 있는 곳에서 무시로 살피고, 내가 타인과 더불어 명쾌히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끊어 버림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것이며, 필경 어느 곳에서 유출되었는가를 살피고 살핀다면 평소 생소한 곳이 스스로 익숙해질 것이니, 생소한 곳이 익숙하여지면 익숙한 곳은 도리어 생소하게 될 것이다. 어느 곳이 익숙한 곳인가. 5음(五陰), 6입(六入),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 25유(二十五有),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사량계교(思量計較)하는 심식(心識)이 발나오지 않아서 발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하나의 끈나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에 유랑케 하며 모든 고통을 만들어 내지만, 이 하나의 끈나름이 이미 생겨나면 보리멸반과 진여불성이 문득 현전(現前)하게 될 것이다. 현전(現前)한 때에 이르러서는 또한 현전(現前)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말하기를.

"눈에 응한 때에는 일천 개의 태양이 비춤과 같아서 만상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귀에 응한 때에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가 죽어 응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힘을 빌리지 않은 것이다. 자연히 인연에 응할 때에 활발하고 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음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세간의 속된 일을 사랑(思量)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미치지 못한 곳을 들이켜서 사랑하여 보이라. 어느 곳이 사랑이 미치지 못한 곳인가.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물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의 글자에 어떠한 기량이 있는 것일까? 청컨대 안배하여 헤아려 보도록 하라. 개교와 안배를 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니, 다만 뱃속에서 번민하며 마음에서 깨달은 때에는 놓아 버리지 말고 다만 '무자(無字)'를 들어야 한다. 이를 들어오고 이를 들어가면, 생소한 곳은 스스로 익숙하고 익숙한 곳은 스스로 생소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일용인

하면 곧 이를 쓸어버리고자 하여 받치려 없애니. 이는 불초(佛粗)의 가르침 가운데 무한한 방편이 모두 의리(義理)에서 나와서 진흙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히 큰 방편을 삼은 줄 알지 못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냉담무위(冷淡無爲)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꼼짝도 하지 못한 자이다.

혹자는 반조의 범문으로써 여실히 참구하다가, 조금이라도 응집된 기미가 있으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여 다시금 자제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복한 생각을 가져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도리를 말하고 지견을 나타내니, 이는 남승가(納信家)의 본분정령(本分正令)이 부처를 삼고 조사를 삼으며,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쳐 거듭 거듭 모조리 명근(命根)을 끊어버리는 참수단인 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문호(門戶)의 빛과 그림자를 잘 못 알

아서 구경(究竟)의 안락처로 삼은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하고서 방치한다면, 우리 부처님의 바른 종지가 거의 땅에 떨어질 것이니, 애용하고 애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칠에 그대가 물은 바는 때에 맞게 대써야 할 일을 바로 알고서 물은 것이라 하겠다. 내 비록 알파한 지식에 공부한 게 없으니 어떻게 한 마디 말로 분명한 것을 가려서 말류(末流)의 폐단과 고질병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그러나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학인은 다만 활구(活句)를 참구할지언정 사구(死句)를 참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사구(死句)는 이로(理路)와 연로(言路)가 없고 재미와 모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선을 하는 도인이 반조와 간화(看話)를 막론하고 여실히 참구하는 것은, 마치 서로 한 덩이의 불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얼굴을 볼 태우게 된다. 모두 불법의 지혜를 조처할 곳이 없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화두나, 반조나, 같으니, 다르니 하는 허다한 것들을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한 생각이 앞에 나타나 무절하게 관조하여 남음이 없으면, 백전 법문과 무량한 묘의(妙義)를 구하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일어서 여실히 보고 여실히 행하며 여실히 작용하여 생을 벗어나 죽음으로 들어감에 큰 자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오로지 모든 생각들이 이에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11문)은 누리의 사람들이 이 색을 보고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소리를 듣고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니, 어떠한 것이 소리와 색을 초월한 것입니까? (* 이 아래의 열 가지 물음은 나옹조사의 물음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답) 생색(生色)을 초월하여 무일할까.

(제12문) 이미 소리와 색을 초월하였다면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이니, 어떻게 바른 공부를 해야 합니까? (답) 발써 사탕이로다.

(제13문) 이미 공부를 하였

만 화

법구경

마음의 장

이름은 불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함 원

하! 눈이 제법 오네요. 아이들 안데러오길 잘했지? 하지만 아이들만 집에둬서 걱정돼요. 일길 용만이 엄마한테 좀 심퍼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마음이 안놓이네. 여기서 모든걸 잊어 버리는거야.

당신하고 호켓이 산 길 걸어보는게 멋해만이지? 당신은... 이렇게 가까운곳에 산사가 있다는것도 우리한테는 복이야. 정말 그래요. 어! 저 연기... 불난거 아니냐? 그런가 봐요.

가만! 저쪽이면 우리 동네... 어보. 실어 - 내가 라면 끓였다. 아... 안돼!

빨리 내려가 우리집 일지도 모른다. 어보. 어떻게 된거야. 길이 없었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쁜 전리를 모르며 신님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억이 없다.

일단 산위로 다시 올라가서 차근차근 살펴서 찾아봐요. 그... 그새에 애들이... 마음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선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어보 저기 철이 보여요. 길을 찾았구나.

당신도 빨리빨리 뛰어. 어보. 그러지 말고 전화부터 먼저 해봐요. 어보. 아! 엄마야 이제 철에 도착했어? "무슨 견해를 일으키는가." 또 물었다. "나를 잘못 치지 마소서." 답하였다. "그만 두어라. 그만 두어... 말하지 마라. 나의 법은 오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받아 보세요. 아무 일 없어요? 이름은 불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마음의 성격을 굳게하고 지혜의 무기로 싸워라. 싸워서 얻은것은 지키면서 경건하라.

"일상 인연처에서 살피고 살피라"

도인은 화두·반조 차별상 없이 참구할 뿐

연처에서 살피고 살피는 것이 반조가 아니겠는가. 사랑진로(思量進路)의 마음을 가지고서 '무자(無字)' 상으로 들어가 이를 들어서 놓지 않는 것이 화두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종교선사 또한 사람들에게 반조하는 법을 가르쳤고, 곁하여 화두 드는 법의 대략을 보여주었으니, 다만 그 법의 대략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보리멸반과 진여불성(眞妙如佛性)이 문득 분명하게 드러나서 스스로 생소한 곳은 스스로 익숙하여지고 익숙한 곳은 스스로 생소하게 되리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살펴 본다면, 화두를 드는 것과 반조하는 두 가지의 공부에서 그 효험을 얻을 이 어찌 깊고 얕음이 있겠는가. 옛 사람이 이와 같이 가르쳐 준 기원을 하나하나 날이 들어 말할 수는 없으나 모두 반조와 간화(看話)로써 차별상을 가지지 않았거나, 오늘 나의 학인들이 서로가 공격하여 영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이 처럼 배워 왔는가.

혹자는 본분화두에 따라서 여법(如法)히 참구하다가, 조금 쉬어진 곳이 있으면 곧 만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금 이로(理路)를 섭렵해 보았다

다만 반드시 공부가 익숙해야 할 것이니, 공부가 익숙할 때에는 어떠합니까? (답) 밭이 익는 것은 그럴 따 하지만, 공부가 익는 것은 아니다.

(제14문) 이미 공부가 익숙하였다면 다시 더욱 쿠투명을 잃어버릴 때는 어떠합니까? (답) 익숙한 공부 이전에도 또한 쿠투명이 있는가, 없는가.

(제15문) 쿠투명을 잃어버리면 냉랭하고 답답하여 전혀 맛이 없고 힘이 없어 의식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행하지 않는 이러한 때에도 또한 환신(幻身)이 사람에게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하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시절입니까? (답) 환화공신(幻化空身)이 곧 법신(法身)이요, 무명실성(無明實性)이 곧 불성(佛性)이다.

(제16문) 공부가 이미 동정(動靜)에 사이가 없고 지나가니 항상 한결같아서, 부딪쳐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방

법이었다. 24) 팔식(八識) : 유식(唯識) 중에서 나오는 식의 종류,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아나식(末那識)·아비야식(阿耨羅識)

모 집

* 본 학원은 큰 규모와 탄탄한 강의를 자랑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기초부터 고급회화까지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사무보조 내근직 아르바이트도 제공됩니다.

불자라면 특히 좋습니다.

문의 전화: 737-5689

니시무라(재일교포) / 한국명: 김광섭

일본어 문화원

정신 육체를 넓게 열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명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글씨의 속성이 근원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행법입니다.
- 재산적 부담·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응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불교에 대한 편견적 개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편진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권선징악을 뿌리채 뒤집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직원모집

경리 1명(女) · 관리 1명(男)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도서 **문주사** 서울 종로구 창진동6번지 ☎(02)720-9372 · 3 Fax:(02)723-0646